논어 17편 양화 9장 · 원문·풀이

子曰：「小子！何莫學夫《詩》？《詩》可以興，可以觀，可以群，可以怨；邇之事父，遠之事君；多識於鳥獸草木之名。」

독음 · 자왈 소자 하막학부시 시가이흥 가이관 가이군 가이원 이지사부 원지사군 다식어조수초목지명

쉬운 풀이(요약) · 시는 마음을 일으키고 세상을 살피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원망을 절도 있게 표현하도록 돕는다. 부모와 임금을 섬기고 자연의 이름을 익히는 데도 유익하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小 작을 소 소 / 何 어찌 하 하

莫 없을 막 막 / 學 배울 학 / 夫 지아비 부 부 / 詩 귀글 시 시

可 옳을 가 가 / 以 써 이 이 / 興 일 흥 흥 / 觀 볼 관 관

群 무리 군 군 / 怨 원망할 원 원 / 邇 가까울 이 이 / 之 갈 지

事 일 사 사 / 父 아비 부 부 / 遠 멀 원 / 君 임금 군

多 많을 다 다 / 識 알 식 식 /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 鳥 새 조 조

獸 짐승 수 수 / 草 풀 초 초 / 木 나무 목 목 / 名 이름 명 명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